세계 최장 터널 개통하는 스위스. 터널 주변 관광지는?

17 년이 걸려 탄생한 고타드 베이스 터널, 주변 관광에 미치게 될 영향

알프스 종단이 더 쉽고, 빨라졌으니 고타드 터널 위 진풍경은 잊혀지는 것인가?
스위스에서 그럴리 만무
1882 년부터 운행하던 고타드 전통 파노라마 기차 계속 운행
슬로우 트래블러 위해 고타드 고갯길 체험하는 다양한 방법 소개
걸어서, 자전거로, 마차타고, 직접 운전하여 고타드 고갯길 유유히 둘러보기
고타드 베이스 터널을 만들게된 계기도 물류 트럭이 야기하는 환경 파괴 막기 위해서였다고

스위스에서는 세기에 한 번 있을 대공사가 17 년의 대장정을 마치고, 드디어 6 월 1 일, 개통식을 치르게 되었다. 세계에서 가장 길고 가장 깊은 철도 터널, 고타드 베이스 터널의 길이는 총 57km, 가장 깊은 지점의 깊이는 2300m 다. 스위스의 독어권인 취리히(Zurich)주와 이탈리아권인 티치노(Ticino) 주를 연결한다. 최대 시속 250km 로 달리며 57km 의 터널을 20 분만에 주파한다. 이로써 스위스 내의 이동 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물론, 북유럽과 남유럽 여정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되었다. 알프스를 관통하는 최초의 평지 터널이기도 하다.

원래 고타드는 알프스에 있는 산맥으로, 발레(Valais), 티치노(Ticino), 우리(Uri), 그라우뷘덴(Graubünden) 네 개 주에 걸쳐 형성되어 있을만큼 거대하다. 때문에 그만큼 스위스 남북을 통행하는데 큰 장벽이 되어 왔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이미 약 135 년전인 1882 년 고타드 철도 터널(15km)이 개통되었고, 1980 년에 자동차를 위한 고타드 터널(16.9km)이 개통하였다. 알프스를 종단하는 수송 물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번 고타드 베이스 터널이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특히 그 동안 화물 수송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트럭이 야기할 수 있는 사고와 환경 파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더 크다.

그렇다면, 알프스를 건너는 것이 이렇게 쉬워졌으니 고타드 터널이 관통하는 고타드 고갯길을 비롯한 주변 관광지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렇다고 해서 과거의 고타드 루트가 잊혀지는 것은 아니다. 새 터널이 개통된 후에도 1882 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고타드 루트 기차편 역시 계속 운행된다. 수 많은 다리와 일곱 개의 터널을 지나는 파노라마 루트를 운행하는 기차편으로 고타드 지역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스위스정부관광청은 고타드 고갯길을 특별하게 여행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 소개하고 있다. 하이킹으로, 마운틴 바이킹으로, 옛 영국인들이 그랬듯 마차를 타고, 직접 운전대를 잡고 그림 엽서에 등장할만한 고타드 고갯길 풍경 속을 유유히 달려 볼 수 있다.

스피드를 원하는 여행자들 뿐만 아니라 슬로우 트래블러도 소중하니 말이다.

자료제공: 스위스 정부관광청 www.MySwitzerland.co.kr

Switzerland Tourism
13Fl.,Dongbu Dadong Bldg.,Da-Dong, Jung-Gu, Seoul, Rep.of Korea, Telephone +82 (0)2 3789 3200 Fax +82 2 3789 3255,
www.MySwitzerland.com It is our pleasure to help plan your holiday.